

화제의 프로

btn '선만화'



리 프로지만 30분을 생각케한다. 매편마다 독자 스님과 노스님의 선문답을 통해 퍼뜩이는 지혜를 선사해준다. 5~6컷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노스님·동자 30초 선문답...불자호응

잠깐본 화면에 30분씩 곰곰생각케

동자 스님 왜 거북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스님: 평소에 말 많은 거북이가 나뭇가지를 뚫고 날다 그사이를 못하고 입을 열다 떨어졌단다.

동자: ... 스님: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은 언젠가 이런화를 입게 된다.

불교텔레비전의 가장 좋은 프로그램 '선만화'는 30초짜

BBS '오늘을 이끄는 불교'

오늘을 이끄는 불교의 저력은 무엇인가. 매주 한가지의 주제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불교의 맥락을 찾아 보는 시간이 불교방송의 '오늘을 이끄는 불교' (매일 밤 11시 5분~20분)다. 이 프로그램에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심을

거나 문화와 음악, 미술에 폭넓게 영향을 끼치는 불교의 맥을 찾아 보는 시간에 정취자의 호감이 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프로그램 선정되는 주제마다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를 초청한다는 것도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가능케 하는 한 요인이다.

부처님 말씀 경제 등 주제별로 해석

전문가 초청 생활속 불법현장 밝혀

기술이든 까닭은 부처님의 말씀이 경제, 정치, 과학, 수학, 음악, 문학, 지리학 등 예까지 두루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특징 때문. 대웅전이 있는 곳 주변에 어김없이 악수가 나오는 까닭은 무엇때문인가를 밝힌다

프로그램 담당 PD인 박상필 씨는 "전문지식을 쉽고 이해시키며 핵심을 도출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는 청취자들이 전화를 해서 주제와 출연자까지 요구하는 정도"라며 즐거운 비명을

네팔 룸비니에 한국사찰 건립

대각회서...8월 중순경 착공
대웅전·강원등 8백평 규모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 동산에 처음으로 한국사찰이 건립된다. 대한불교 대각회 도문스님(대성사 조실)은 지난 10일 서울 대각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룸비니 개발계획 부지 내 사원구역에 8월15일경 한국사찰을 건립하는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도문스님은 "용성스님의 10유혹 가운데 6번째인 '부처님 4대성지를 잘 가꾸라'는 뜻을 받들어 룸비니에 한국사찰을 건립키로 했다"며 "지난달 27일 네팔 교육문화부 소속인 룸비니 개발위원회(LDT)와 사찰건립을 위한 임대차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체결된 룸비니개발 계획 사원구역은 LDT가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를 성역화 하기위해 세계 불교국가들 상대로 개방한 지역으로 한국사찰 건립허가는 일본, 중국, 태국에 이어 19번째다. 룸비니에 건립될 한국사찰은 한국전통 사찰형식을 적용, 만다라형을 도입한 건물 배치와 한국전통 경관을 재현하며 현대적 기능과 기술을 반영하게 된다. 기본 설계에 의하면 대웅전(73.7평), 설법전(128.9평), 복문(19.1평), 선원(63.6평), 강원(63.6평), 스님용 요사(70평), 신도용 요사(70평), 종각(10.9평), 고루(10.9평), 회랑(310평), 정문(15.2평), 축문(9.1평) 등 총 8백45평의 건적이 건립된다.



차찰 스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 동산에 한국사찰 건립을 위해 도문스님이 현지관계자와 일대사

이번 룸비니 한국사찰 건립은 도문스님이 94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세계 불교도우의회(WFB)총회에 참석,네팔대표였던 록다 산씨(LDT위원장)를 만나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도문스님은 "룸비니에 건립되는 한국사찰에서 세계 불교지도자들이 모여 인류를 위해 불교도가 해야 할 역할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각회는 한국사찰 건립 불사를 원만하게 추진키 위해 법신스님을 룸비니 현지로 파견 할 예정이다. (이준영 기자)

원용종 한혜봉 스님 종정취임

오는 26일 캐피탈호텔서

원용종(총무원장)은 4월 2일 12시 총주 조정지법 중앙법원에서 '광복 50주년 세계 및 국가발전기원 대법회'를 거행한다. 광복절도 함께 봉행하는 이번 법회를 앞두고 총무원장 법우스님은 "천만 민족에게 대자비한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여 우리의 영원한 남북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자

방송 가 단신

대구·광주설명회 연기

불교텔레비전은 지난 15일 대전엑스포극장에서 1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btn설명회 및 2차주식 공모에 대한 홍보회를 개최했다. 또 28, 29일로 예정된 대구·광주설명회는 지역사정상 4월초로 연기됐다.

'리틀북다' 비디오 출시

베르나르도 베르틀루치 감독의 영화 '리틀북다'가 5월 드림박스에 의해 비디오로 출시된다. 인도의카스트제도에 반

방송 마이리이트

-btn-

'부처님께 바칩니다' 배워 우리들의 찬불가 (19일 12:25~12:30) 변규백 작곡 조용국 작사의 '부처님께 바칩니다'를 배운다. 가수 남궁옥분과 시범스님이 진행.

차희석군 투병모습 소개

자비의 천수천안 (21일 10:10~12:00) 16세 때 바이러스성으로 의사불행되어 누워서 지내는 차희석군. 아버지는 한강하류에서 실뱀장어 잡이로 생계와 병원비를 충당하지만 역부족이다. 희석군의 투병모습을 소개한다.

신홍사팀 3연승 도전

퀴즈특급 이워꼬? (24일 11:10~12:00) 꾸러기 카메라를 통해 친숙해진 개그맨 김중국씨와 토크쇼는 재미있는 여자 강문희씨가 새롭게 진행한다. 3연승을 향해 도전하는 경기도 화성 신홍사팀과 서울 상계동 사천왕사팀이 한판승부를 펼친다.

김희조씨 찬불가 인연

나의심 나의불교 (25일 11:10~12:00) 찬불가 작곡가 김희조씨. 김희조씨가 찬불가 작곡가로 태어나기까지 기가막힌 사연과 불교와의 인연, 노력이 있었음에...

스님이나 종무원들은 불교를 대표하는 얼굴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들의 언행은 불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며 심지어 일반인들에게는 이들의 한마디가 불교의 전체적 인상을 좌우할 수도 있다.

얼마전 지방 T사에 문의차 전화를 건 일이 있다. 전화속 종무원은 반말과 불명스런 어조로 일관한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부산행 열차에서 있었던 일이다. 객실 통로까지 승객들이 꽂 들어찬 가운데 두 비구니스님과 남자승객 두 명이 나누는 얘

의 여러가지 질문과 스님의 친절한 답변으로 이어졌다. 도난된 성보를 걱정하는 승객과 "미안하다"며 어쩔 줄 몰라하는 스님의 태도가 오랫동안 뇌리에 남았다. 승광사 스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교인의 한사람으로서 절실한 책임을 느낀 대답으로 들려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잠야한 월유경에 "마땅히 달처럼 부드럽게 살고, 겸손하게 마음을 단속하고, 태도를 바르고 조심스럽게 하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이번 불교도 국제화시대에 있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보다 성실한 서비스(?)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이들이 불을 부처님 품에 안고 그들에게 부처님법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교는 훌륭한 법문에서 보다 친절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말을 통명 스님이었던 T사의 종무원에게 전해주고 싶다.

중국 부처님 치아사리 버마에 대어

중국정부는 미얀마정부가 부처님 치아사리의 대어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수락했다고 지난 1일 11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이봉총리는 미얀마 방문기간 중에 1996년 사리를 상환하겠다는 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작년 4월부터 시작된 45일간의 운반 행렬에 수십만명의 버마 불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배중에 1억8천만 크약(2

-BBS-

베스트세븐 영화제 마련

영화음악실 (20일 22:05~22:55) 영화가 탄생한지 1백년. 영화음악실은 특집 베스트세븐 영화제를 마련한다. '레니그라드의 카우보이'를 비롯한 불후의 명곡을 감상한다. 또 멕시코의 휴양도시 에스콘디노에서 펼쳐지는 재미난 이야기를 그릴 '산타노'가 들려주는 삼바리듬과 함께 감상한다.

홍미경씨 그림포교 소개

피안을 향하여 (23일 14:10~14:45) 호작 실이란 화실을 운영하며 밝게 웃으며 삼사다 운동을 펼치는 홍미경씨. 엽서크기의 캔버스에 '주황색 크레용으로 비로자나불을 그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그녀는 불탑광명으로 밝아지기를 늘 염원한다.

김혜성 시인의 '봄날' 감상

가슴에 넘는 시 (25일 18:15~28:20) 시인 김혜성씨의 봄날새는 뜻뜻한 시(봄날)를 감상한다. (박미영 기자)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 제작 보금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증생제도에 노력하시는 스님의 고귀한 뜻에 두손 모아 합장 향배 올립니다. 스님의 높은 원력으로 오늘의 한국불교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파일 현수막은 옥의 설치된 장엄물로써 많은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가람기획에서는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14도 칼라의 화려한 단청무양 현수막을 전국민적 추체에 장엄물로서 사용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제작하여 다년간 보금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가람기획과 더욱더 알찬 초파일이 되도록 스님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항상 부처님 제자됨을 기뻐하며 오직 불교일만 고집하는 "가람"에서는 불교문화 진흥을 위해 이번 4·8행사포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스님의 자비공덕이 온누리에 떨칠 수 있도록 오체투지 합장드립니다.

불기 2539년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 축

대한불교 조계종 ○○○

● 봉축현수막 : 6m(4만원), 8m(5만원), 10m(6만원)
※전화로 주문하시면 배달해 드립니다.

■ 연락처 : (02)720-5121, 팩스 732-3769(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빌딩201호)

가람기획 代表 이주영 습掌

이 가문에 방생을 이데로 갈까 망설여지지요. 삼진강 상류 마이산 탐사 아래 탐저수지에는 지금도 물이 가득차 있어 방생하기에 좋습니다.

신비의 관광지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탐의 신비

영험 있는 기도도량 탐영제 맑은 물 방생

방생과 기도 관광을 1Km 경내에서 다 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0655-33-2900, 32-0652, 32-0072 전화하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진안 마이산 탐사